

교회소식 | 나무십자가 한인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정오중보기도 - 매일 정오 12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1. 성찬 예배

오늘 예배는 성찬 예배로 진행됩니다.

2. 릴루엣 원주민 밴드 성탄 선물보내기

- 연령과 성별에 맞는 20-30불 정도의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선물은 개인별 포장한 후 포장지 겉면에 나이와 성별을 기록해 주십시오.
- 준비된 선물은 12/8(주일)까지 교회로 가져오면 됩니다.
- 총 66개 중 56개 신청완료 되었습니다.
- 문의 : 장혜성집사(778-318-2294)

3. 유스 다니엘 목장 교사로 헌신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6-8학년과 9-12학년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신청 및 문의 : 김상훈목사(778-886-4596)

▶교우소식

- 다과 : 친교부 / 다음 주 : 김영자집사/최자은집사 가정
- 소천 : 김정미집사 부친(11/21, 한국) ■ 출타 : 김하연집사(한국 방문)

▶12월 목회일정

- 12/04(수) 교회협의회 주관 성탄절 연합예배(7PM, 호산나교회)
- 12/07(토) 12월 월삭 새벽기도회 ■ 12/22(주일) 2020년도 제직학교
- 12/25(수) 성탄절 감사예배 / Potluck(11AM) ■ 12/31(화) 송구영신예배(11PM)

■예배위원안내

날 짜	1부 기도	2부	헌금위원	안 내
11월 24일	송지은	송정은	송상현	12월 박미란
12월 01일	장호선	신용진	송정은	

■공동기도제목 12시 정오 시간에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교회를 위해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되게 하소서.
성도를 위해	류영현성도(김정미 집사, 현우, 현대) 가정애 주님의 위로를 내려 주소서.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정 병 완
부목사(유스) 김 상 훈
전도사(키즈) 장 호 선
전도사(친양) 박 청 아

협력 선교지 및 선교사

캐나다 릴루엣 원주민(이준호 선교사)
북 한 First Steps(수잔 리치 Susan Ritchie)
에디오피아 Petros Network

2019년 신앙주제

내 백성을 위로 하라!

Comfort my people.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제 7권 47호

주 일 성 찬 예 배

2019. 11. 24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2시
예 배 의 부 름	인도자	
기 원	인도자	
* 찬 송	20장(통 41)	
기 도	송지은자매	송정은집사
교 회 소 식	인도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찬	인도자	
공 동 기 도	다같이	
특 별 찬 양	최슬비, 송지은, 송지혜, 한동균 청년	
봉 헌 기 도	인도자	
다음 세 대 축 복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23:1-11(신약 228)	
설 교	담대하라	
* 파 송 찬 양	543장(통 342)	
* 축 도	담임목사	

※표는 일어섭니다.

새벽기도회

매일(화-토) 오전 6시
“요한계시록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교회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요한복음 강해”
인도: 담당 교역자
장소: 실만한 물가

교회학교예배

주일 오후 2시
Kids(드림, 비전목장)
Youth(다니엘목장)
인도: 담당 교역자



나무십자가한인교회
WOODEN CROSS KOREAN CHURCH

Tel. 778.871.7740 / www.vanwkc.com

교회 : 1460 LANSLOWNE DR. COQ

실만한 물가 : 2288 ELGIN AVE PO. COR

선한 이웃 선교로 통로가 되는 나무십자가 공동체

사도행전 23:1-11 (담대하라)

1. 예루살렘 치안 책임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바울의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의회(로마 제국 총독부가 인정하는 유대인 자치기구로 기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입법과 사법권을 가진 회의체, 오늘 날 국회의 성격을 띠)를 소집했습니다.
2. 사도 바울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1절).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천사와 영(Spirit)의 존재를 인정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모두 부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은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따라 부활신앙을 전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주장으로 바리새인들을 자신의 편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상대로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옹호하자 두 세력이 크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천부장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데려갑니다.
3. 한 바탕 소동이 있던 그날 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것을 약속하며 담대하라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던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셨던 주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 가는 바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4.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있고 난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갑니다. 극단적인 유대인 40명이 금식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소식을 조카로부터 듣게 됩니다. 잘못된 종교적 열정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천부장은 바울 암살단이 조직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날 밤 제 삼시(저녁 9시경)에 보병 200명,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동원해 바울을 로마 총독 벨릭스가 주둔하는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을 합니다. 이때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사건조사 공문에서 유대인들의 바울 고발 사건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일 뿐 로마법에 의해 사형이나 구속의 사유가 될 만한 죄가 없다고 평가하며, 벨릭스 총독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바울 고발 사건을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6. 동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살해하려 하지만, 로마군의 천부장과 총독은 로마법에 따라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도움의 손길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격려하신 것처럼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의 격려와 도움의 손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시다.

♣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

월요일 - 세네갈의 이슬람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이 전통과 훈육이라는 이유로 불법구급, 학대, 구걸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동학대를 자행하는 학교와 교사를 단속하고 어린이들을 보호 할 수 있게 하소서.

화요일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기근에 의한 영양부족과 미비한 의료 환경으로 유아의 20% 정도가 5세 이전에 사망하고 있습니다. 유아를 위한 원조와 의료사역이 활발히 이루어져 영아 사망이 줄어들게 하소서.

수요일 - 세계 전체 인구의 과반 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의 증가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인권이 향상되어 소통의 부재로 인한 사회문제들이 해소되게 하소서.

목요일 - 전 세계적인 출산율의 감소로 인구고령화가 빨라지면서 2050년 세계 인구의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적으로 노령화에 따른 사회비용과 갈등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소서.

금요일 -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종족 간 폭력사태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종족 간 폭력사태가 해소되고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소서.

토요일 - 사하라 사막 아남 아프리카의 인구가 앞으로 30년 동안 2배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소서.